



“규제합리화, 청년의 시선으로 알린다” 제1기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

- 국민이 지어준 ‘규리어스’라는 이름표 달고 전국 규제합리화 현장 생생히 전달
-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원년, 국민 체감형 홍보 본격화

□ 국무조정실(실장 윤창렬)은 4월 17일(금) 오전 11시,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대회의실에서 ‘제1기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’을 개최했다.

□ 올해 첫발을 뗀 ‘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’는 전국에서 총 110명이 지원해 5.5: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, 최종 20명이 선발됐다. 앞으로 서포터즈들은 SNS 명칭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‘규리어스*’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
* 규제의 ‘규’와 호기심(Curious)의 큐리어스를 합친 단어로, ‘규제합리화를 이끄는 호기심 서포터즈’를 의미

○ 서포터즈들은 올해 12월까지 정부의 규제합리화 현장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블로그 기사, 카드뉴스,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규제합리화 공식 SNS(블로그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)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.

○ 특히 올해는 28년 만에 기존 ‘규제개혁위원회’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‘규제합리화위원회’로 격상·출범한 뜻깊은 해로, 서포터즈들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번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를 비롯해 네트워킹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등이 함께 진행됐다.

- 1기로 선발된 대학생 정유민 씨는 “규제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첫 서포터즈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.”며 “국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규제합리화 사례를 청년의 시선에서 생생하게 취재해,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.”고 포부를 밝혔다.
-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“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규제합리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, 국민과의 소통 메신저로서 서포터즈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.”며,
 - “앞으로 전국 각지의 규제합리화 현장을 누빌 서포터즈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”고 밝혔다.

※ 【붙임】 규제합리화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발대식 현장 사진

담당 부서	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이대섭 (044-200-2430)
		담당자	사무관 김도연 (044-200-2914)



사진 1)



사진 2)

